

근로자 건강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



88년도 특수검진 종합연보 발간

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는 88년도에 전국 46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검진결과를 종합분석 평가한 연보를 제작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에 배포하였다.

동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검진을 받은 근로자는 유해사업장 7,885개소의 427,611 명으로서 이중 직업성질병 유소견자는 총 8,919 명으로 1.6%를 차지하고 있다.

질병별로 보면 진폐증이 전체분진 폭로자 166,156명중 6,307명으로 유병율 3.8%, 소음성난청은 수검자수 253,789명중 2,209명으로 유병율은 0.8%, 유기용제중독이 수검자수 56,502명중 34명으로 유병율 0.06%, 특정화학물질중독이 수검자수 25,972명중 279명으로 유병율 1.1%, 연중독이 수검자수 22,888명중 90명으로 유병율은 0.3%, 기타 이상기압, 진동, 유해광선 등에서는 직업성질병으로 진단된 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결과에 따르면 87년도에 비해 진폐증 및 난청은 유소견율이 감소한 반면 중금속, 유기용제, 화학물질중독에 의한 직업성질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○ 협회는 현행 근로자건강관리제도가 정부주도적이고 사업주 책임만을 요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시대적 변천에 따른 현실적 제도를 강구하기 위해 대학 및 전문연구기관의 전문가 36명으로 연구위원회(위원장: 조규상 박사)를 구성하여 4개 분과(보건관리, 건강진단, 환경위생, 교육계몽)로 나누어 지난 6.22~6.24(2박3일) 강원도 용평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.

○ 동 워크숍에는 연구위원 이외에 특별위원으로 정부 및 관련기관, 학계, 노동계의 관련인사를 초청하여 분야별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.

한편 조규상 연구위원장은 산업보건 개선목표와 방향은,

1. 소외되어온 영세근로자들의 건강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
2. 조직적인 산업보건기구를 통하여 훈련된 보건요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하며,
3.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장내에서 산업보건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돼 나가야 하며
4. 위의 모든 것이 훌륭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산업보건의 모든 분야의 기술적, 학술적 연구진흥의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.

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아울러 민간주도체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전문기관의 책임과 윤리도 지적하였다.

각 연구분과위원회별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사항은 세분하여 약 50여개가 지적되었으나 총체적으로 볼때,

- 사업장보건관리의 주체와 형태
-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관리방안
- 정부지원 및 산재보험체계의 예방사업비 투자
- 유관기관과의 역할과 기능 분담
- 검진기관전문화와 질병자 사후관리
- 유해 사업장 작업환경관리대책
- 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계몽

등으로 구분되며,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 15:00(파레스호텔) 공청회에서 제안키로 하였다.

임성빈 사무국장 노동부장관 표창 수상

매년 정부에서 산업안전강조기간(7.1 ~ 7.31)을 맞아 산업재해예방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포상식에서 서울지부 임성빈 사무국장이 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.

공청회 개최계획

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현행 관련법령과 제도를 우리나라의 산업환경과 사회적 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협회는 오는 7.21(금) 15:00부터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.

공청회는 지난 6.22 ~ 24에 용평에서 개최되었던 워크숍에서의 연구내용 발표와 함께 전체회의시간에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.

협회, 지부에 Fax 설치

협회 본·지부간 및 대외 기관과의 신속정확한 업무전달을 위해 본부를 비롯 9개 센터에 Fax(모사 전송기)를 설치하여 7월 1일부터 가동되었다.

사용 Fax번호는 아래와 같다.

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 및 지부 Fax 번호안내			
본	부	(02)	585-1584
서	울	(02)	858-2175
부	산	(051)	322-8082
대	구	(053)	72-6353
광	주	(062)	54-2409
대	전	(042)	626-6458
전	북	(0652)	251-0420
충	북	(0431)	63-7139
마	산	(0551)	95-2460
동	해	(0522)	75-6323